

- 본문 : 마태복음 9장 9~13절

설교자 : 조경래 담임목사

- 제목 : “잔치를 열고 태신자를 초대한 제자”

**· 본문 읽기**

9. 예수께서 그 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10.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11.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12.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느니라
13.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 마음의 문을 열며**

샘 슈메이커(Sam Shoemaker) 목사의 저서 『I Stand By The Door』에서 한 말을 다시 한 번 되새겨보라. “성도의 자리로 정해야 할 가장 좋은 자리는 구원의 문 안에서 깊이 들어간 자리가 아니라 바로 문이 있는 자리이다.” 슈메이커 목사가 복음의 능력과 전도의 열매를 갖고 있는 건강한 신앙인을 보면서 그의 목회에서 깨달은 진리이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너무 깊이 안으로 들어가면 밖의 사정을 잊어버린다. 그래서 문 가까운 위치에 있어야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자들에게 문을 열어줄 수 있고, 인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당신은 성도의 자리를 생각할 때 어디에 앉아 있는가? 이것은 교만의 상석과 겸손의 말석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 것이다. 당신 자신은 희생적인 결단(눅9:23)과 함께 영혼을 위한 헌신의 자리를 찾아 있어야 할 곳에 앉아 있는가?

**· 말씀의 씨를 뿌리며**

1. 마태는 하나님 앞에서 2가지 헌신적인 삶을 보여준다. 먼저는 “희생적인 결단과 영혼을 위한 헌신”이다. 마태가 영혼을 위한 헌신, 즉 ‘문 가까이 앉아 있는 삶’을 위해서 먼저 내린 “희생적인 결단”이 있었다(마9:9).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마태가 내린 “희생적인 결단”의 깊이를 깨닫고 있는가? 레위지파 가문에서 제사장 교육을 받고 있던 그가 세상을 소유하기 위해 경멸과 멸시와 맞바꾼 돈을 버는 세리가 되었을 때 마태는 어떤 사람이었겠는가? 그런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눅5:28)고 했을 때 마태가 버린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2. 마태는 “영혼을 위한 헌신”을 위해서 자신의 집에서 “잔치”를 열었다. 마태가 연 잔치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가?(마9:10) 마태의 삶을 묵상할 때 다음의 의미가 이해되는가? 묵상의 의미를 함께 나누어보라.
  - \* 축하의 의미 : 회심(回心)의 자축연
  - \* 결단의 의미 : 파부침주(破釜沈舟)
  - \* 증거의 의미 : 제자 선포식

**· 삶의 열매를 거두며**

마태의 잔치에는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이 초청되었다. 이를 본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지적할 때 주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느니라”(12b),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13b) 말씀하셨다. 마태의 집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당신이 태신자로 품고 걱정하며 기도를 시작한 분들의 이름과 기도제목을 나누어 보라.

**· 말씀기도제목**

1.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임을 고백하며 “문이 있는 자리”에 앉아, 방황하는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제자 되게 하옵소서!
2. 마태와 같이 “전인적인 변화와 은사적인 헌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신실한 임직자를 선택하사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공동체로 서게 하옵소서!
3. 송원교회가 「은혜의 선택, 은혜의 부르심」 앞에서 태신자를 작정하여 생명잔치에 초대함으로 “온전한 제자 선포식”과 “헌신 결단식”이 되게 하옵소서!

